

단체장이
바라본 하천

River & Culture



강운태 | 광주광역시장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천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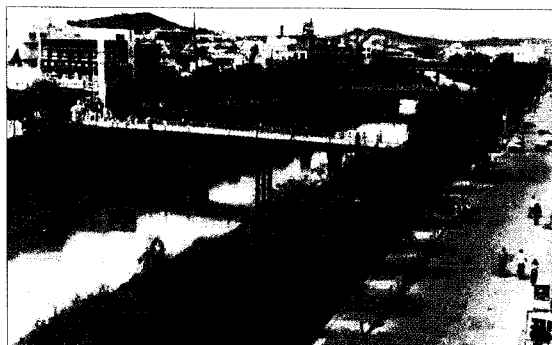
무등산에서 시작하여 광주의 중심을 흘러가는 광주천은 광주시민의 삶과 생명,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도심지를 거쳐 영산강에 합류하면서 생명의 원천으로 우리 고장을 지켜왔다. 이처럼 산업화로 대변되는 고도성장기 이전에는 우리 삶의 소중한 터전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산업화의 물결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부터 오염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옛날처럼 맥을 감는 어린이들은 찾아볼 수 없고 영산강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광주시는 이렇게 변모된 광주천의 과거와 산업화 사회 속에서 변모과정, 현재의 광주천 조명을 통해 “생명이 살아 숨쉬는 광주천”,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광주천”의 비전을 세우고 실천해 가고자 한다.

과거

광주천의 옛 이름은 건천(巾川), 조탄(棗灘) 등으로 불렸고, 일제강점기에 광주천이라 칭하였다. 광주천에서의 본격적인 하천정비는 일제강점기인 192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공제방이 축조되면서 증류와 하류에 발달한 곡류하도가 직선화되었고 하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1970년대 본류의 양동 복개상가 구간 356m가 복개된 것을 시작으로 1980년대 중반 신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서방천, 극락천, 동계천 등의 주요 지류가 복개되어 상가, 도로 등으로 활

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복개된 하천은 15개소이며, 복개구간의 연장은 약 37km에 달한다. 이후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하천이 오염되고 건전화되어 광주천의 하류는 4~6급수로 전락하여 사실상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



〈그림 1〉 광주천의 과거 전경(1970년대 초 광주교 부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태하천으로의 변모 과정

하천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던 광주천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은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주요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 광주천 건전화 방지사업(1995년)
 - 도시 하수처리사업을 위한 차집관거 및 하수처리장의 건설로 인하여 하천유지유량이 감소되어 건전화된 광주천의 적정 유지용수를 확보하여 하천의 기능을 재생

하교 쾌적한 수환경 조성

- 영산강 하천수 43,200톤/일을 광주천 상류 동구 백화아파트 앞에 방류

■ 광주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1999년)

- 광주천 상류 구간 하도정비, 저수호안 및 식재계획 실시
- 구간 : 원지교~학림교(L=1.2km)

■ 광주천 자연환경 정비사업(2000년)

- 저수호안 개수, 낙차공 개량 및 수변식생 등을 통하여 수질정화 기능을 부여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 구간 : 원지교~양림교(L=1.84km), 학림교~양림교(L=0.76km)

■ 광주천 자연환경 복원사업(2002년)

- 도심내 공공 연린 공간으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

고, 맑은 물이 흐르는 옛 정취가 깃든 자연하천의 모습을 되살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공동체 의식함양과 애향심 고취

- 구간 : 양림교~광천2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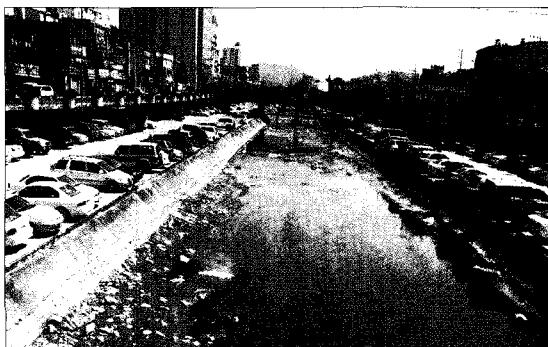
■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004년)

생태하천으로서의 본격적인 정비 사업은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서 '05년부터 '09년까지 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동구 용연동 제2수원지에서 서구 치평동 영산강 합류점까지 19.3km 구간과 증심사천 0.95km 구간을 포함하여 총 연장 20.25km 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였다. 이 사업은 구간별로 가지는 문화적,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구간을 크게 3개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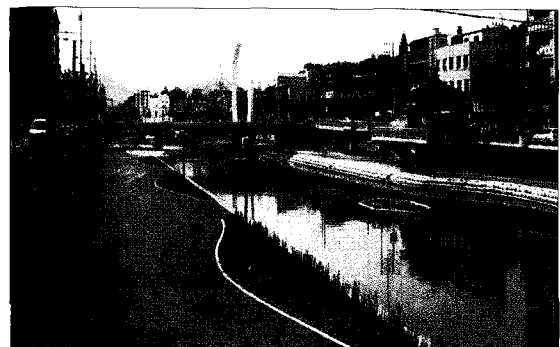
더불어 하천의 건전화 방지를 위한 하천 유지수량을 기존 43,200톤/일의 방류수 외에 10만톤/일의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초과하여 추가로 교동교에서 3만톤/일, 증심사천 합류부인 원지교 부근에서 5만톤/일, 증심사천의 숙실마을 입구에

〈표 1〉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정비구간

구 간	위 치	주 제	정비방향
1구간	제2수원지~원지교(7.5km)	자연속의 하천	- 하상굴착, 과도한 시설 도입 지양 - 고수부지내 산책로, 쉼터는 제한적 도입
2구간	원지교~광천2교(7.3km)	문화속의 하천	- 광주시민의 여가문화와 삶의 흔적을 담은 광주천으로 조성 - 경관불량요소 개선 - 역사·문화요소를 반영한 수경시설 도입
3구간	광천2교~영산강합류점(4.5km)	생태속의 하천	- 인위적인 시설배치 지양 - 고수부지와 생태적 연계강화를 위해 저수호안 미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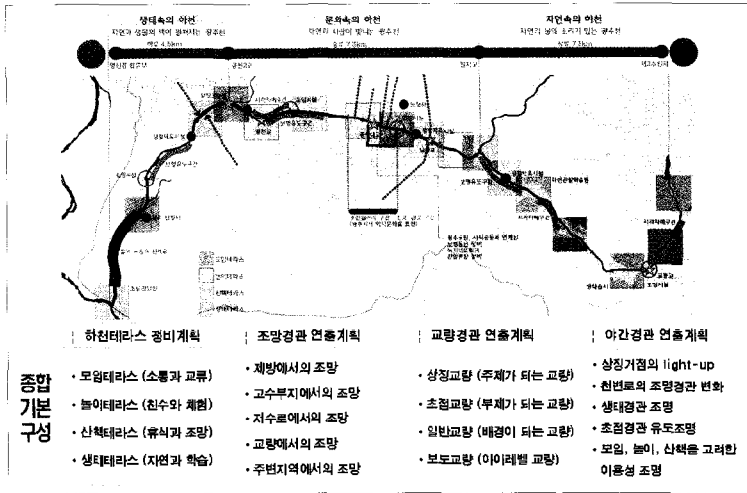


〈정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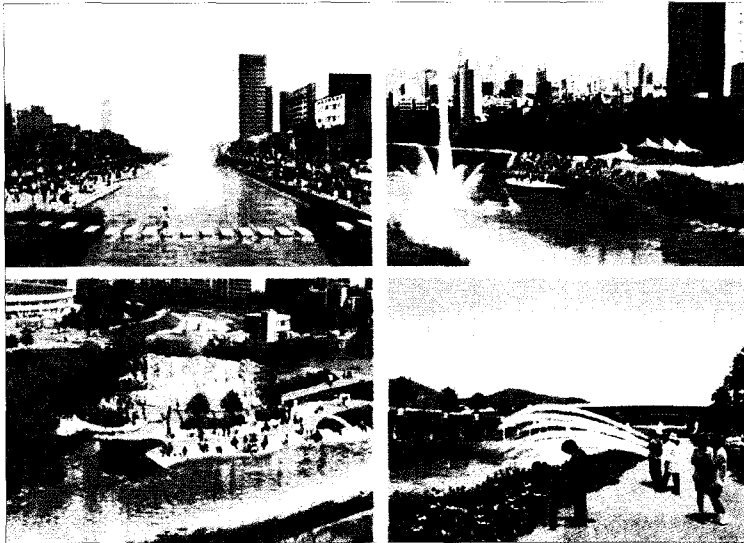


〈정비 후〉

〈그림 2〉 광주천 광주교 직하류(2구간) 정비 전·후



(그림 3) 광주천 자연형정화사업 기본구상도



(그림 4) 광주천 정비현황도



(광주천 광주교 야경)

(징검여울 및 저수호안 갯바들)

(그림 5) 광주천의 현재

서 2만톤/일을 현재 방류하고 있다.

광주천의 현재

'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이어온 광주천 정비사업의 꾸준한 노력 결과, 광주천 하류에 서식하는 잉어, 붕어 등이 종류의 도심지역으로 많이 유입되어 먹이가 풍부해지고 수변 지역의 식생 및 바위 등의 생태환경의 변화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발견되는 등 광주천 환경 정비와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또한, 147만 광주광역시민 모두가 즐겨 찾는 도심하천으로 변모하고 있다.

광주천의 비전

도심하천은 하천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근래에는 하천을 중심으로 한 워터프론트가 도시의 발전과 쾌적성을 좌우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정비사업은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광주천을 시민이 즐겨 찾고 꽃향기 가득한 녹색창조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녹색창조계획은 수량확보, 수질개선, 경관개선 및 광주천 사랑 시민운동을 위해 4개 분야 10대 과제 16개 사업에 대해서 2020년까지 모두 1조4,38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성 전〉



〈조성 후〉

〈그림 6〉 광주천 버드나무숲 조성계획



〈조성 전〉



〈조성 후〉

〈그림 7〉 광주천 야생화군락 조성계획



〈1사 1하천 MOU 체결(11.5.4)〉



〈1사 1하천 광주천 정화활동〉

〈그림 8〉 1사 1하천 MOU 체결

■ 수량확보

- 1급수 수자원 확보 : 주암댐 원수 광주천 공급(10만톤/일)
- 대체 수자원 확보 : 영산강 하천수 대체공급(10만톤/일)
- 물 순환체계 회복 : 대규모 빗물이용 시설 및 습지 설치

■ 수질개선

- 2011년(4급수, BOD 7mg/l) → 2015년(3급수, 5mg/l) → 2020년(2급수, 3mg/l)
- 하수관리시스템 개선 : 처리장 초고도 시설 설치, 분류식 하수관거 개선
- 비점오염원 저감 :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설치, 월류하수

처리시설 설치

- 자정능력 회복 : 광주천 직접정화시설 설치, 낙차공 개선사업

■ 경관개선

- 생태경관 조성 : 꽃 향기 가득한 명품 광주천 수변 조성
- 하천 접근성 강화 : 자전거 보행 네트워크, 도로변 Green River Walk 사업

■ 광주천 사랑 시민운동

- 시민참여 시스템 구축 : 광주천 범시민 네트워크 구성
- 시민운동 활성화 : 합성세제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 1사 1하천 운동, 빗물저금통 갖기 운동

이와 관련하여 '11년 8월 광주시내 9개 기업과 민·관·군 합동으로 광주천을 명품하천으로 가꾸기 위해 MOU를 체결한 바 있다. 1사 1하천 MOU 추진목적은 △ 광주천 수질개선과 친수공간 조성 △ 고수부지에 야생화 군락지 조성 등 △ 깨끗한 광주천 가꾸기를 위한 친환경 활동 지속 전개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위해 민·관·군 상호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우리시는 광주천이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명품하천으로 재탄생되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하천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